조선시대 雙行註音體裁 漢學書의 漢音 표기 변천 연구*

- 老乞大諺解類와 『經書正音』을 중심으로 -

박 철 민**

1. 머리말
2. 연구대상
3. 한글의 漢音 표기 역사
4. 한글의 雙行註音體裁 漢音 표기
5. 漢音 표기의 시기별 변천
6. 맺음말

초록: 본 논문은 조선시대 譯學書 중 한글이 사용된 雙行註音體裁 漢學書의 중국음(이하 漢音) 표기 변천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쌍행주음체재는 한자 아래 左·右音을 부기한 유형으로, 16세기부터 1800년(정조 24)까지 출현한다. 그 반대 유형은 單行註音體裁이다.

조선시대 쌍행주음체재 한학서의 한음 표기는 크게 4시기로 나눌 수 있다. 1시기는 16세기 초 편찬된 『(飜譯)老乞大』부터 시작한다. 1시기는 방점 사용, 支韻 內 齒音 우측음에서의 '·' 표기, 眞, 模韻에 한하여 우측음에서의 초성 'ㅱ' 유지 등의 특징이 있다. 1시기 자료는 이외에도 『(飜譯)朴通事』가 있다.

2시기는 1670년(현종 11) 무렵 인출된 무신자본 『老乞大諺解』부터 시작한다. 2시기는 방점 폐지, 'ㅿ'와 'ㅇ'의 혼동, 支韻 內 齒音 우측음에서의 'ㅡ' 표기, 牙, 我 등 일부 좌측음의 초성 'ㅇ'으로 복귀 현상, 얼화의 반영 등이 있다. 이외 2시기 자료는 『朴通事諺解』, 『譯語類解』, 『五倫全備諺解』 등이 있다.

3시기는 1734년(영조 10) 활자 제작이 시작되어 1735년(영조 11) 인출된 『經書正音』부터 시작

* 이 논문은 2018년 10월 27일 진행된 2018년도 〈한국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 '해외 학계와의 교류를 위한 한국어문학의 새로운 모색' 제2부 분과별 주제발표 '국어학 및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발표한 논고를 토론과 투고 심사를 거치며 수정·보완한 것이다. 부족한 글을 봐주신 토론자와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전공 박사과정.

한다. 3시기는 좌측음이 『사성통해』의 속음에서 正音으로 복구되는 특징이 있다. 이외 3시기 자료는 평양판 『노걸대언해』가 있다.

4시기는 쌍행주음체재 한음 표기의 마지막 시기이다. 1763년(영조 39) 간행된 『老乞大新釋諺解』부터 시작한다. 4시기는 구개음화 현상이 보이며, 寒韻에 속한 일부 한자의 양성모음화, 二, 人 등의 한자에서 'ㅿ' 표기 전면 폐지 등이 있다. 또, 몇몇 한자의 모음은 'ㅡ'에서 'ㅣ'로 바뀌며, 魚운에 속한 일부 한자의 경우 모음 'ㅠ'에서 'ㅞ'로 바뀌는 특징 등이 있다. 이외 4시기 자료는 『朴通事新釋諺解』, 『重刊老乞大諺解』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위 한음 표기 변천을 살펴보기 위하여 『洪武正韻譯訓』, 『사성통해』, 『續添洪武正韻』 등의 운서와 老乞大諺解類 등의 한학서를 살펴보았다. 또한, 『노걸대신석언해』 권2가 현전함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釋譜詳節』과 『月印釋譜』 속 眞言이 한음 표기임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글의 한음 표기가 적어도 1449년(세종 31)부터 시작하였음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 漢音(중국음), 漢學書, 老乞大, 續添洪武正韻, 經書正音, 月印釋譜, 釋譜詳節, 眞言

1. 머리말

이 글은 조선시대 雙行註音體裁 漢學書에서 한글로 기재된 中國音(이하 漢音) 표기의 변천을 고찰한 것이다. 외국과의 통상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것은 상호간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 국가의 언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한다. 이같은 외국어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司譯院이라는 기관을 설치[1]하고 외국어를 담당하게 하였다.[2]

조선의 사역원에서는 중국어(이하 漢語), 몽골어, 일본어, 여진어(뒤의 만주어)로 구성된 四學을 학습시켰다.[3] 조선은 그중 한어를 가장 중시하였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이다.

외국어 학습서인 譯學書는 漢學書, 蒙學書, 倭學書, 淸學書로 나눌 수 있다. 역학서는 訓民正音(이하 한글) 창제 이후 큰 변화를 겪는다. 바로 해당 언어의 발음

1) 『太祖實錄』 2년(1393) 9월 19일 "置司譯院, 肄習華言".

2) 『通文館志』 권1 「沿革」 官制條 "國初置司譯院, 掌譯諸方言語".

3) 『通文館志』 권1 「沿革」 官制條 "其屬官有蒙・倭・女眞學, 通爲四學".

표기와 의미를 해석한 언해문의 附記이다.

한학서의 경우 한글로 한어의 음운을 표기하였다. 대개 18세기 이전에는 한자 하나당 左・右音을 주기한 雙行註音體裁 문헌[4]이 출현하고, 18세기 이후에는 한자 하나당 하나의 발음을 표기한 單行註音體裁 문헌이 출현한다.[5]

한학서의 기본 표기 문자인 한자는 기타 3종의 역학서 표기 문자와는 달리 表意文字이다. 표의문자는 의미 전달에는 이점이 있으나, 그 발음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렇기에 한글이라는 表音文字로 표의문자인 한자의 발음을 표기한 한학서는 近代漢語를 연구함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또, 국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외국어 표기 방식과도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개 번역학적 관점의 연구,[6] 언해문을 중심으로 한 국어학적 연구,[7] 편찬・간행・교정 등의 서지학적 연구,[8] 특정 문헌을 중심으

---

4) 유재원, 2002「조선 역음서의 정속음과 좌우음의 관계 및 성격에 대한 연구」『언어와 언어학』3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 종합연구센터 언어연구소에서는 '二元的 표음체계'라는 표현을 썼다.

5) 단행주음체재 문헌에 속하는『漢淸文鑑』은 1779년(정조 3) 무렵 편찬된 문헌이다. 이외 단행주음체재 문헌으로는『華音啓蒙諺解』,『華語類抄』등이 있다.

6) 김성란, 1999「〈飜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대조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신옥, 2005「朴通事 比較硏究 : 中國語原文과 韓國語와의 比較를 中心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맹주억・김정림, 2006「老乞大諺解類 諸板本 중 '就'의 번역에 관한 연구」『중국문화연구』9, 중국문화연구학회; 주해영, 2011「《老乞大新釋諺解》의 번역 양상과 특징」,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문영, 2018「《老・朴》 언해 문헌 간 飜譯 樣相에 대한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등.

7) 오종갑, 1978「16世紀 國語의 Hiatus 回避現象 : 飜譯朴通事・老乞大를 中心으로-」『한민족어문학』5, 한민족어문학회; 안종복, 1986「類解類書에 나타난 國語의 表記法 硏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곽재용, 1994「유해류 역학서의 '신체'부 어휘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향실, 2000「近代 國語 母音에 관한 硏究 : 司譯院 譯學書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석주연, 2001「《老乞大》와 《朴通事》의 諺解에 대한 國語學的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무식, 2003「번역노걸대의 표기와 음운」『문화와 융합』25, 문화과언어연구회; 김주국, 2007「〈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의 비교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향옥, 2010「〈譯語類解〉의 瑣說類 語彙 硏究」,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곽군남, 2015「〈역어유해〉 한자 어휘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함오매, 2015「『老乞大』언해류의 어휘 양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등.

로 분석한 한글의 한음 표기 연구,[9] 이중언어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10] 한어의 문법・어휘 연구[11] 등이 주로 진행되었으며, 한글의 한어 표기를 중심으로 살펴본 글은 매우 적다.[12][13] 또, 한글 한음의 표기 변천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

8) 정승혜, 2004「『朴通事新釋(諺解)』의 간행에 대한 一考察」『어문연구』 32권 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김하라, 2017「『譯語類解』의 편찬과 譯官 金指南」『규장각』 5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9) 신용권, 2004「《飜譯老乞大》에 나타난 좌측음의 성격에 대하여」『중국문학』 42, 한국중국어문학회; 신용권, 2009「《飜譯老乞大》에 나타난 濁音과 入聲 표기에 대하여」『중국어학사』 54, 영남중국어문학회; 신용권, 2016「「홍무정운역훈」에 나타난 속음의 성격에 대하여」『언어학』 76, 한국언어학회; 신용권, 2017「《四聲通解》에 나타난 今俗音의 성격에 대하여」『중국문학』 92, 한국중국어문학회 등.

10) 장서평, 2004「중세의 한국어교육과 교재 : 《老乞大》 對漢語史硏究的啓示 -漢語作爲第二語言學習和硏究歷史簡論」『이중언어학』 25, 이중언어학회; 이득춘, 2004「중세의 한국어교육과 교재 : 朝鮮王朝的外語敎育和華語學習」『이중언어학』 25, 이중언어학회; 장향실, 2018「조선시대 외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 사역원의 중국어 교육을 중심으로」『국제한국어교육』 4집 1호, 국제한국어교육문화재단 등.

11) 김광조, 1998「《飜譯老乞大》의 조사 "了", "來", "也"의 의미와 문법적 기능에 관하여」『중국문학』 30, 한국중국어문학회; 이주리, 2007「《譯語類解》를 통해 본 朝鮮時代 漢語語彙 硏究 : 품사 분류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림, 2008「《老乞大》四種版本의 조사 '的', '得'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육화, 2008「老乞大語彙考 : ~上, 知他, 怎麽 ,根底를 중심으로」『중국어문논총』 39, 중국어문연구회 ; 최해영, 2011「『老乞大』四種版本 'X時'硏究 : 以語法標記作用的 "時"爲主」,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린, 2011「《老乞大》 諸 刊本에 나타난 부정사의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Zhao, Jingjing, 2012「『老乞大』네 개 판본에 나타난 "得"자의 의미기능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범노신, 2014「《老乞大》, 《朴通事》의 漢語 補語 構造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등.

12) 『홍무정운역훈』과 『사성통해』의 正音, 俗音, 今俗音의 성격을 살펴보거나, 앞의 두 운서를 토대로 『(번역)노걸대』의 좌・우음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 이돈주, 1989「「飜譯老乞大・朴通事」의 漢音 調値에 대하여」『국어학』 18, 국어학회; 신용권, 2011「『번역노걸대・박통사』에 나타난 정속음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한글』 293, 한글학회; 신용권, 2012「《번역노걸대・박통사》의 한어음 표기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언어학』 62, 한국언어학회; 신용권, 2016「「홍무정운역훈」에 나타난 속음의 성격에 대하여」『언어학』 76, 한국언어학회; 신용권, 2017「《四聲通解》에 나타난 今俗音의 성격에 대하여」『중국문학』 92, 한국중국어문학회; 이춘영, 2018「《譯語類解》의 俗音・或音 考察」『중국어문학』 77권, 영남중국어문학회 등이 있다. 이외 안주호, 2003「〈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진언표기 연구」『한국언어문학』 51, 한국언어문학회; 김태경, 2007「『월인석보』 眞言표기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쌍행주음체재의 한음 표기를 우선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한학서에서 쌍행주음체재 문헌이 먼저 출현하기 때문이다. 쌍행주음체재 문헌 중에서도 老乞大諺解類와 『經書正音』은 한음 표기의 변화를 가장 빨리 반영한 문헌이므로 해당 자료를 중심으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외에도 『洪武正韻譯訓』·『續添洪武正韻』·『四聲通解』를 참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시기별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위 문헌들을 소개하고, 한글 표기 한음의 출현 시기를 고찰한 뒤, 한음 표기에 사용된 한글의 특징 및 시기별 변천을 살펴보겠다.

2. 연구대상

본 장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문헌들의 서지와 그 특성을 간행시기별로 소개하겠다.[14]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료 선별의 사유를 보다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단, 노걸대언해류는 판종이 많으므로 한 번에 소개하겠다.

를 통한 중국어음 연구」『중국어문학논집』 43, 중국어문학연구회과 같이 『월인석보』의 진언 표기에 사용된 한어 연구도 있다.

13) 한학서 이외 역학서를 대상으로 한글의 외국어 전사 표기를 살펴본 연구도 존재한다. 청학서의 경우 심영환, 2016「淸學四書 滿洲語의 한글 轉寫 연구」『역사와실학』 60, 역사실학회; 김은희, 2017「淸學四書의 漢字語에 대한 한글 轉寫에 나타난 漢語語音의 특징」『중국인문과학』 제66집, 중국인문학회 등을 들 수 있다. 몽학서는 심영환, 2014「蒙學三書 몽골어의 한글 轉寫 연구」『역사와실학』 54, 역사실학회를 들 수 있으며, 왜학서의 경우 배석주, 1998「類解書諸外國語音の轉寫表記考」『논문집』 10, 경주대학교; 조강희, 2006「倭學書의 促音에 表記되어 있는 한글 音注의 特徵과 問題點」『일어일문학』 30, 대한일어일문학회; 호규진, 2018「『倭語類解』の日本語音注表記」『일본어문학』 제80집, 일본어문학회 등을 들 수 있다.

14) 심사 과정 중 해당 장이 너무 길다는 의견을 받았다. 하지만 자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뒤에야 다음 연구로 나아갈 수 있다. 또, 2장에서는 그간 널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새로 소개하는 자료가 있으므로 분량을 그대로 두었다.

1)『洪武正韻譯訓』(1455년)

『홍무정운역훈』은 명나라 洪武帝(재위 1368~1398)의 勅命으로 편찬된 勅撰韻書인 『홍무정운』의 한음을 번역한 운서로서, 세종조부터 번역작업이 진행되어 1455년(단종 3) 완성되었다. 본 문헌은 1950년 이전까지 逸失되어 신숙주의 『保閑齋集』 권15에 수록된 서문을 중심으로 언급되는 것에만 그쳤었다. 그러던 중 이숭녕(1959)[15]에 의해 현전본이 처음 알려졌다.

『홍무정운역훈』은 16권 8책 중 권 1,2가 누락된 14권 7책(권 3~16)이 유일본으로 전한다. 현전본은 1455년 인출된 초인본이다. 현재 고려대학교에 소장되어 있으며, 1973년 박병채가 복원한 권1, 2[16]와 함께 『고려대학교 영인총서』 제2집[17]으로 영인된 바 있다.

『홍무정운역훈』은 한글로 한음을 표기한 최초의 운서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해당 문헌과 뒤에 소개할 2종의 운서를 통하여 한학서에 기재된 한글 표기 한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영인본과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포털[18]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토대로 『홍무정운역훈』을 살펴보았다.

『홍무정운역훈』을 살펴볼 때 주의할 점은 권3・권7・권8의 경우 원래의 한음 표기가 일부 剪除되고 후대에 보완되었다.[19] 그러므로 일부는 『사성통해』와 『속첨홍무정운』을 참고하여 살펴보았다. 아래는 『홍무정운역훈』의 서지사항이다.

---

15) 이숭녕, 1959「洪武正韻譯訓의 硏究」『진단학보』 제20호.

16) 복원과 관련해서는 박병채, 1974「원본 홍무정운역훈의 결본 복원에 관한 연구」『아세아연구』 통권 51호 참조.

17) 고려대학교출판부, 1974『洪武正韻譯訓』, 고려대학교출판부.

18)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19) 예컨대 『홍무정운역훈』 권3 2a에 제시된 한음 표기 중 '심'이 있으며, 해당 발음 아래에는 申, 伸, 信, 娠 등을 수록하였다. 그러나 해당 운목이 眞운이며, 전후로 제시된 한음 표기의 韻尾(한글의 종성에 해당)가 모두 'ㄴ'이므로 여기서 제시된 종성 'ㅁ'은 오류임을 알 수 있다. 원문이미지를 살펴보면 종이를 덧대 한음 표기를 필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정치음과 치두음의 구분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홍무정운역훈』의 한음 표기를 살펴볼 때 반드시 다른 자료를 참고해야한다.

〈표 1〉『홍무정운역훈』의 서지사항[20]

서명	간행시기	서지사항	소장처
洪武正韻譯訓	1455년 (단종 3)	16卷 8册(14권 7책 현전), 活字本(大字:洪武正韻字, 小字:甲寅字), 四周單邊, 有界, 8行 15字, 半郭 22.2×15.7cm, 上下內向黑魚尾, 注雙行, 크기 31.3×20.9cm.	고려대학교

2)『續添洪武正韻』(1517년 이전)

본 문헌은 최세진(崔世珍, 1468~1542)의 저작이다. 『四聲通解』 凡例에서 '(…) 글자의 취사와 음의 정속은 오롯이 『홍무정운』을 기준으로 삼는다. 단, 속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글자지만 『홍무정운』에는 빠진 글자가 많다. 그러므로 지금 增添을 함께 하고, 혹 다른 운서를 참고하여 보완한다.'[21]라는 내용을 보아 『속첨홍무정운』은 『四聲通解』 편찬 무렵 편찬되었으리라 판단된다.

해당 문헌도 일실되었으나, 김완진(1966)[22]에 의하여 통문관 소장본이 처음 소개되었다. 이 또한 권상 105장 앞면까지만 전하는 결실본이다. 그러나 수록된 내용은 『홍무정운역훈』 권1부터 권9까지를 담고 있어 앞서 소개한 『홍무정운역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원본의 현 소장처는 명확하지 않으나, 곡효운(2013)[23]에서 동국대학교 소장 영인본을 소개하였다.[24]

『속첨홍무정운』은 그간 공식적으로 영인된 바가 없다. 필자가 살펴본 바 동국대 소장 영인본은 판권지가 없었다. 이와 함께 실물 크기 등을 고려하면 1966년 발견되었을 당시 누군가에 의해서 실물 크기 그대로 영인되었으리라 추정된다.[25] 본고

20) 이숭녕(1959)과 국가문화유산포털 참조.

21) 『四聲通解』「凡例」"(…) 字之取捨, 音之正俗, 專以洪武正韻爲準. 但以俗所常之字, 而正韻遺闕者, 多矣. 故今並增添, 或以他韻參補之".

22) 김완진, 1966「續添洪武正韻에 對하여」『진단학보』 제29・30호.

23) 곡효운, 2013「再論《續添洪武正韻》」『중국언어연구』 46권, 한국중국언어학회.

24) 위 논문 173면 "(…) 筆者在東國大學圖書館偶然發現了這部韻書的影印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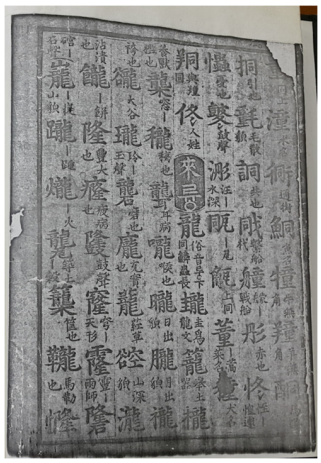
25) 보존서고에 보존된 점, 파손을 우려하여 영인된 종이의 뒷면을 배접한 점 등을 보아 학계에 소개되었을 당시인 1966년 무렵 영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에서는 이 영인본을 참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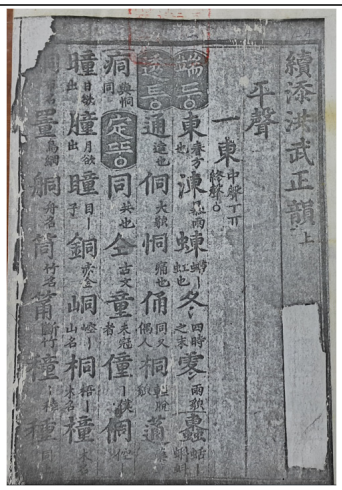
『속첨홍무정운』의 경우 현재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에 書影을 추가로 제시한다. 서지사항과 문헌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표 2〉『속첨홍무정운』의 서지사항[26]

서명	간행시기	서지사항	소장처
續添洪武正韻	[16세기 초]	2卷(卷上 현전), 木版本, 四周雙邊, 有界, 8行 14字, 半郭 27×19cm,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注雙行, 크기 34.8×22.5cm.	원본(미상) 영인본(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속첨홍무정운 영인본 1b



속첨홍무정운 영인본 1a

〈그림 1〉『속첨홍무정운』의 1장 모습(동국대학교 소장 영인본)

아래는『속첨홍무정운』과『홍무정운역훈』의 동일 韻 내 수록 한자를 비교한 표이다. 살펴보면『홍무정운역훈』을 기반으로『속첨홍무정운』을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추가로 수록한 한자는 '(' 아래에 표기한 듯하다.

26) 김완진(1966)과 영인본 참조.

이상 살펴본 결과『속첨홍무정운』을 통해 실전된『홍무정운역훈』의 권1, 2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표 3〉『속첨홍무정운』과『홍무정운역훈』의 동일운 수록 한자 비교

자료	운목	발음	수록 한자
홍무정운역훈	眞	진	眞 鎭 瑱 塡 珍 磌 蓁 甄 桭 侲 娠 振 帳 蹎 畛 震
속첨홍무정운	眞	진	眞 鎭 瑱 塡 珍 磌 蓁 甄 桭 侲 娠 振 帳 蹎 畛 震 (眞 珍
홍무정운역훈	寒	원	岏 忨 抏 刓 園 羱 蚖
속첨홍무정운	寒	원	岏 忨 抏 刓 園 羱 蚖
홍무정운역훈	庚	빙	兵 幷 倂 栟 冰 弸 掤
속첨홍무정운	庚	빙	兵 幷 倂 栟 冰 弸 掤 (垪 屛

3)『四聲通解』(1517년, 중종 12년)

『사성통해』는 1517년(중종 12) 최세진이『홍무정운역훈』과『四聲通攷』(逸失)를 중심으로 한음 표기와 주석, 수록 한자 등을 보완한 운서이다. 주석을 보아 위 운서 외에도『廣韻』,『蒙韻』등 다양한 문헌들을 참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문헌은 현재 일실된『사성통고』의 범례와『노걸대』·『박통사』를 번역할 때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는「飜譯老乞大朴通事凡例」가 같이 부기되어 있다.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몽운』을 언급한 점으로 보아 파스파 발음 연구에도 필요한 운서라 판단된다.

현전 최고본은 임란이전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을해자번각본이며,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27] 이외에도 1614년(광해 6) 훈련도감본과 이를 1656년(효종 7)에 번각한 본이 있다.

본고에서는 을해자번각본[28]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훈련도감자본 두 종을 아

2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사성통고」항목.

28) 을해자번각본은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사이트(http://dl.ndl.go.jp/)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본 문헌은 서문 하단 기록와 인장을 통해 사역원의 舊藏本임을 알 수 있다.

울러 살펴보았다. 시기가 앞선 두 판본을 아울러 살펴보는 것은 初刊本이 없는 현재로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이라 생각된다.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4〉『사성통해』의 서지사항[29]

서명	간행시기	서지사항	소장처
四聲通解	[壬亂以前]	2卷 1册, 木版本(乙亥字本飜刻), 四周雙邊, 有界, 10行 19字, 上下大黑口,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注雙行, 半郭 및 크기 미상.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四聲通解	1614년 (광해 6)	2卷 2册, 訓鍊都監字本, 四周雙邊, 有界, 10行 19字, 半郭 23.8×15.9cm,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注雙行, 크기 34.5×21.3cm.	국립중앙도서관

4) 老乞大諺解類

지면상 노걸대언해류는 함께 소개하겠다. 노걸대언해류는『老乞大』를 언해한 문헌이다.『노걸대』는 고려 말기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며,[30] 한어 학습용 회화서의 특성상 口語가 기술되어 있다. 한문본은 1책, 언해본은 대개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전 最古本은 1998년 대구에서 발견된 고려본이다. 고려본『노걸대』의 경우 元代 蒙文直譯體를 기술하고 있어 元代漢語 연구에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문헌이기도 하다.

이후 1480년(성종 11)에『노걸대』원문이 수정[31]되었으며, 16세기 초 최세진에 의해 한글로 한음을 표기하고 언해를 부기하였다. 이 때 인출된 본을 흔히『(飜譯)老乞大』라고 한다.[32]『(번역)노걸대』이후 1671년~1675년 사이에 무신자본『노

29)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참조.

30) 고려 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한학서로는『朴通事』가 있다. 그러나『박통사』의 고려본은 현전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31)『成宗實錄』11년(1480) 10월 19일 : "侍讀官李昌臣啓曰: 前者承命, 質正漢語於頭目戴敬, 敬見『老乞大』·『朴通事』曰: '此乃元朝時語也. 與今華語頓異, 多有未解處.' (…)", 上曰: "(…) 且選其能漢語者, 删改『老乞大』·『朴通事』".

32) 현재 학계에서는 일명『번역노걸대』로 통용되고 있다. 이는『사성통해』속「飜譯老乞大

걸대언해』[33]가 인출되었고, 1745년(영조 21) 자음이 교정된 『노걸대언해』가 평양에서 간행[34]되었다. 이후 1763년(영조 39) 『신석노걸대』와 『노걸대신석언해』가 간행[35]되었으며, 1795년(정조 19) 『重刊老乞大』와 『重刊老乞大諺解』[36]가 간행[37]되기까지 약 300여년간 지속적으로 간행된 조선시대 대표적인 한학서라 할 수 있다.

이 중 언해본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번역)노걸대』는 현재 권 상·하가 모두 전하며, 1980년 아세아문화사에서 두 권을 함께 영인하여[38]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본고는 위 영인본을 참조하였다.

1670년대 인출된 무신자본 『노걸대언해』의 경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에서 영인[39]하였으며,[40] 동 연구원 사이트[41]에서 영인본의 이미지

朴通事凡例」가 본 문헌의 범례라고 인식하고, 명명한 것이다. 그러나 『사성통해』의 「번역노걸대박통사범례」가 해당 문헌의 범례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며, 문헌의 실제 권수제도 『노걸대』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다른 『노걸대』 판본과의 구분과 실제 권수제의 절충으로 『(번역)노걸대』라 표기하겠다. 『사성통해』 속 「번역노걸대박통사범례」가 해당 문헌의 범례가 아니라는 견해는 안병희, 1996 「老乞大와 그 諺解書의 異本」 『인문논총』 35권,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신용권, 2004 「《飜譯老乞大》에 나타난 좌측음의 성격에 대하여」 『중국문학』 42권, 한국중국어문학회; 장향실, 2013 「飜譯老乞大朴通事凡例가 부재된 源本 『飜譯老乞大』, 『飜譯朴通事』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제61권, 한국어학회 등을 참고할 수 있다.

33) 무신자본 『노걸대언해』는 인출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록은 없다. 단, 『통문관지』 권8 【서적】조에 기술된 內賜『老乞大諺解』의 주석에서 '강희 경술년(1670년) 芸閣(교서관)에서 鑄字로 印行하였다.'라는 기록과 1675년 承政院假注書였던 이담명(李聃命, 1646~1701)에게 내려진 內賜本(대구가톨릭대학교 소장)을 통해 1670년으로 믿어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무신자는 1671년(현종 12) 8월 이후 교서관에 옮겨지므로, 본고에서는 1671년부터 내사본이 내려진 1675년 사이로 인출시기를 제시하겠다.

34) 『承政院日記』 1745년(영조 21) 11월 6일 "(…) "漢語『老乞大諺解』校正字音, 下送于平安監營, 開刊印出册子十五件, 竝板本, 纔已上來矣".

35) 『通文館志』 권8 「什物」 【新釋老乞大板·諺解板】 "乾隆癸未, 訓長邊憲修整, 芸閣刊板".

36) 『한국의 책판목록』, 1019-20면 【『老乞大』一卷·『諺解』二卷】 "(…) 當宁乙卯, 司譯院奉敎重訂".

37) 그간 학계에서는 『중간노걸대언해』의 간행시기를 『중간노걸대』의 간기에 따라 1795년으로 추정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추정에서 나아가 위 한국의 책판목록에 수록된 누판고를 근거로 『중간노걸대언해』의 간행시기가 1795년임을 입증하였다.

38) 1980 『(原本)老乞大諺解』, 亞細亞文化社.

39) 서울大學校 奎章閣 編, 2003 『老乞大·老乞大諺解』, 서울대학교 규장각.

를 제공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단, 본 문헌은 내용상 오류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42] 본고에서는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내용이 교정된 자료와 『(번역)노걸대』, 평양판 『노걸대언해』를 참조하여 살펴보았다.

1745년 판각된 평양판 『노걸대언해』는 평양감영에서 간행되었으며, 현재 규장각에 한 질이 전한다. 해당 문헌도 영인본과 규장각 사이트를 통해 이미지를 볼 수 있다. 본고는 규장각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이미지를 참조하였다.

1763년 판각된 『노걸대신석언해』는 3권 3책이 한질을 이룬다. 그간 방종현(1946)[43]을 통해 권2와 권3이 한국전쟁 이전에 전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44] 전쟁 이후 소재를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안병희(1996)에 의해 미국 컬럼비아대학 소장본인 권1이 학계에 소개되었다.

필자는 우연히 지인을 통해 권1의 영인본을 보았다. 또 경매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들을 살펴보던 중 과거 권2가 국내에서 거래된 기록을 보았다. 당시 게재된 서영은 일부지만 권1에서 확인되지 않던 한음 표기를 살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권1 영인본과 권2의 일부 서영을 중심으로 한음 표기를 살펴보았다. 아래는 『노걸대신석언해』 권1과 권2의 서영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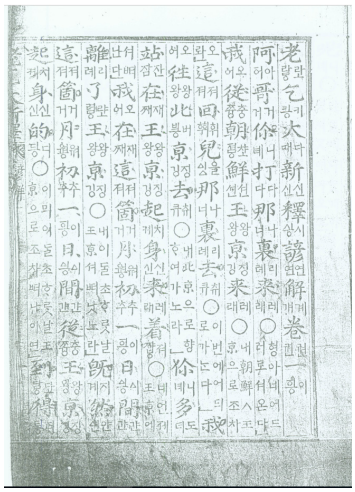
40) 그 이전인 1944년 경성제국대학에서 무신자본 『노걸대언해』를 영인한 바 있다. 해당본은 홍윤표・정광, 2001 「사역원 한학서의 판본 연구(1)」 『한국어학』 14, 한국어학회 318면에서 "규장각 소장의 〈諺解老〉(奎2044)는 1944년에 규장각 총서 제9호로 한어본〈노걸대〉와 함께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에서 영인 출판하였다."라는 대목을 통해 위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과 동일한 저본임을 알 수 있다.

4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home/main.do?siteCd=KY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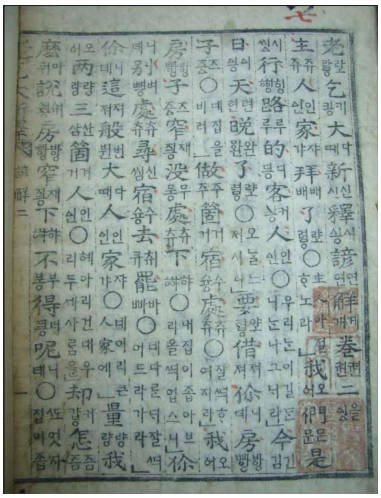
42) 내용의 오류는 한자, 한음 표기, 언해문 등 다양한 곳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각 대학 소장본과 『(번역)노걸대』・평양판 『노걸대언해』와의 비교고찰을 통해 대개 바로잡을 수 있다. 무신자본 『노걸대언해』의 오류 유형과 교정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 예정이다.

43) 방종현, 1946 「老乞大諺解」 『한글』 제95호.

44) 방종현(1946), 41면 "(…) 이 老乞大新釋諺解에 대해서는 아직 이것을 論한 일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 月前에 이야기 중에 偶然히 宋錫夏氏가 이 諺解本을 가진 것을 알게 되어 氏의 好意로 이 책을 빌어서 오늘 여기에 이 考證을 始作하게 되는터이다. 그런데 宋錫夏氏의 新釋諺解는 諺解가 元來 三册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그 第 一卷이 缺册이 됨으로 (…)".



노걸대신석언해 권1(영인본, 개인 소장)



노걸대신석언해 권2(개인 소장)

〈그림 2〉『노걸대신석언해』 권1, 2의 서영

1795년 판각된 『중간노걸대언해』는 다수의 소장처가 있다. 본고에서는 규장각 사이트에서 서영을 확인할 수 있는 『중간노걸대언해』(奎2050)를 바탕으로 한음 표기를 살펴보았다.

이상 살펴본 老乞大諺解類는 모두 한학의 기초 문헌이다. 또한 한어를 익힌 문신들의 교재였으며, 문신들은 殿講을 통해 한어 수준을 점검받았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노걸대언해류는 [부록 1]과 같이 시기별로 한학서를 살펴보았을 때, 대개 한음 표기의 변화를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반영하고 있다.

또 『(번역)노걸대』부터 1745년 판각된 평양판 『노걸대언해』의 경우 한어 원문이 같고, 이외 판본들도 동일 한자가 많아 한음의 변천을 고찰하기에 용이하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비교자료로서 노걸대언해류를 채택하였다.

지금까지 소개한 노걸대언해류의 서지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老乞大諺解類의 서지사항

서명	간행시기	서지사항	소장처
老乞大	[壬亂 以前][45]	2卷 2册, 木版本(乙亥字本飜刻), 四周單邊, 有界, 9行 19字, 半郭 24.4×18.8cm, 上下大黑口,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注雙行, 크기 33×22cm.	고 백순재씨 구장(권상), 성암문고(권하)
老乞大諺解	[1671년~1675년]	2卷 2册, 戊申字本, 四周雙邊, 有界, 10行 19字, 半郭 24.7×17cm,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注雙行, 크기 35.6×22.8cm.	규장각
老乞大諺解	1745년 (영조 21)	2卷 2册, 木版本, 四周雙邊, 有界, 10行 19字, 半郭 24×16.8cm,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注雙行, 크기 36×23cm.	규장각
老乞大新釋諺解	1763년 (영조 39)	3卷 3册(권1,2 현전), 木版本, 四周雙邊, 有界, 10行 20字, 半郭 23.3×17cm, 上下向三葉花紋魚尾, 注雙行, 크기 미상.	미국 컬럼비아대학[46](권1), 개인소장(권2)
重刊老乞大諺解	1795년 (정조 19)	2卷 2册, 木版本, 四周雙邊, 有界, 10行 20字, 半郭 24×16.8cm,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注雙行, 크기 35.2×23.6cm.	규장각

5) 『經書正音』(1735년, 영조 11년)

『경서정음』은 四書三經과 『春秋』의 正文에 한글로 한음을 표기한 한어 학습용 유교경전이다. 판본은 크게 목활자본과 목판본으로 나뉘며, 목활자본은 1734년(영조 10) 활자를 제작하기 시작하여 1735년(영조 11) 10월 사서와 『詩經』·『書經』·『춘추』 등 7종의 경전을 인출한 것이다. 현재 규장각과 아단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45) 최세진이 편찬했던 자료 중 초기 인본으로 전하는 『(번역)박통사』와 『韻會玉篇』 등을 보아 『(번역)노걸대』도 을해자로 인출되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현전 자료는 16세기 초 인출된 을해자본의 번각본이며, 방점 사용, 'ㅇ', 'ㅿ' 등의 표기를 보아 임진왜란 이전 시기 한글 표기의 특성을 담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현전 『(번역)노걸대』의 간행시기를 임진왜란 이전으로 제시하였다.

46) 『노걸대신석언해』의 서지사항은 미국 컬럼비아대학(https://clio.columbia.edu), 석주연(2001)과 국경아, 1999 「《노걸대신석언해》에 나타난 18세기 한국어의 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나, 책의 크기에 대한 기술은 없어 기재할 수 없었다.

1784년(정조 8)에는 사역원에서 위 7종의 경전을 번각하였고, 1800년(정조 24)에는 한학역관 金益瑞에 의해 판각된 『周易正音』과 함께 合印되기도 하였다. 이를 아울러 『경서정음』이라고 한다. 1800년 인출된 완질은 규장각, 일본 동경대 오구라 문고 등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개별 판본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하 장서각), 규장각 등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중 1784년 번각본은 1735년 인출본의 오류를 교정하여 판각하였다.[47] 『경서정음』은 한음 표기가 평양판 『노걸대언해』와 동일하나, 『경서정음』의 간행시기가 10년 더 빠르므로 한음 표기 변천이라는 측면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大學正音』, 『中庸正音』, 『春秋正音』은 규장각과 한국학자료센터 등의 사이트에서 원문이 제공된다. 본고에서는 이를 토대로 입력하여 한음 표기의 시기 구성에 참조하였다. 해당 문헌 또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문헌이다. 그러므로 아래에 서영과 서지사항을 제시한다.

목활자본 춘추정음 권1 1b	목활자본 춘추정음 권1 1a

〈그림 3〉『경서정음』 서영의 예(규장각 소장)

47) 간행과 교정에 관하여서는 박철민, 2018 「『經書正音』의 文獻學的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참조.

〈표 6〉『經書正音』의 서지사항[48]

서명	간행시기	서지사항	소장처
經書正音	1735년 (영조 11)	13冊 27卷, 木活字本(經書正音字), 四周單邊, 有界, 10行 20字, 半郭 25~25.5×16.2~6cm, 注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크기 32~33×20.4~21.2cm.	규장각, 아단문고
經書正音	1784년 (정조 8)	13冊 27卷 木版本, 四周單邊, 有界, 10行 20字, 半郭 24.1~7x16.2~6cm,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크기 32.3~34.6x20~21.8cm.	규장각, 장서각, 일본 동경대 오구라문고 등
周易正音	1800년 (정조 24)	3冊 4卷, 木版本, 四周單邊, 有界, 10行 20字, 半郭 23.3x16~16.1cm,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크기 32.2~33.1x20.8~21.5cm.	규장각, 연세대 등

필자는 지금까지 소개한 자료를 토대로 16세기 초반부터 『주역정음』이 간행된 1800년까지 약 380여년간 이어진 쌍행주음체재의 한음 표기 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번역)노걸대』가 간행되기 이전 한글의 한음 표기를 반영한 문헌과 시기를 살펴보고, 표기의 특성도 간략히 살펴본 뒤 한음 표기의 시기를 고찰하고자 한다.

3. 한글의 漢音 표기 역사

15세기 중반 창제된 한글과 현전 最古의 쌍행주음체재 문헌인 『(번역)노걸대』·『(번역)박통사』와의 시기적 거리는 약 60여년 정도이다. 본 장에서는 이 시기 한글로 한음이 표기된 문헌을 살펴보고, 한음 표기의 특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한음 표기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문헌은 『홍무정운역훈』이다. 그러나 『홍무정운역훈』 이전에 간행되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훈민정음』 언해본에서도 한음 표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48) 박철민(2018) 30면, 46면, 53면 참조.

한음의 齒聲은 齒頭音과 正齒音의 구별이 있으니, ㅈ, ㅊ, ㅉ, ㅅ, ㅆ字는 치두음에 사용하고, ㅈ, ㅊ, ㅉ, ㅅ, ㅆ字는 정치음에 사용한다.[49]

위 예문은『훈민정음』언해본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나는 구절이다. 한음에는 치두음과 정치음이 있어 치음을 표기하는 'ㅈ, ㅊ, ㅅ'의 전후 획의 길이를 조정하여 구분한 것이다. 해당 구절은 한문본『훈민정음』에는 없다. 언해본은 간행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나 권수면의 世宗이라는 표기를 통해 세종 사후에 판각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언해본의 정치음과 치두음 표기는 세종 사후에 정해진 것일까? 아니면 한문본 이후에 정해진 표기를 언해본에 반영한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석보상절』과『월인석보』의 진언 표기를 참조할 수 있다.

위 두 문헌을 살펴보면 한글의 한음 표기는 세종 생전에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김태경(2007)은『석보상절』과『월인석보』에 사용된 진언 표기[50]가 당시 중국어음에 근거하였음을 밝히고 진언에 사용된 한글 표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석보상절』의 진언 표기를 살펴보며 안병희(1993)[51]에서 언급한 바와 달리『석보상절』은『월인석보』와는 표기가 다르므로 온전히 중국음을 의거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살펴본 바[52] 해당 자료는『홍무정운역훈』의 정음과 표기가 일치하며, 형식상 종성 'ㅇ'을 쓴 점[53] 외에는 차이가 없다.

---

4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3『훈민정음』, 340-341면 "漢音齒聲은 有齒頭正齒之別ᄒᆞ니, ㅈㅊㅉㅅㅆ字ᄂᆞᆫ 用於齒頭ᄒᆞ고 ㅈㅊㅉㅅㅆ字ᄂᆞᆫ 用於正齒ᄒᆞᄂᆞ니 (…)".

50) 해당 연구에 따르면『석보상절』권21과『월인석보』권10 72-116장, 권21 70-73장, 권19 52-59, 61-63, 109-110장에 진언이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51) 안병희, 1993「월인석보의 編刊과 異本」『진단학보』75, 진단학회.

52)『석보상절』권21은 역주본이 있으나 영인본은 없다. 필자는 역주본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2『(역주)석보상절』제20~21,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참조하였다. 본 역주본은 서영이 없으나 원문은 입력되어 있기에 참조할 수 있었다.

53) 예로 旨의 경우『홍무정운역훈』에서는 'ㅈ'로 표현한 반면,『석보상절』의 경우 'ㅈㅇ'으로 표기되어 있다. 'ㅇ'은 소릿값 없는 韻尾를 표현하기 위한 용도로 표기된 것이다. 그러므로 'ㅇ'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월인천강지곡』에 표기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홍무정운역훈』의 정음 표기와『석보상절』에 사용된 한음은 표기가 같다.

〈표 7〉『홍무정운역훈』의 정음과 『석보상절』의 진언 표기 비교 예

대상한자	安	曼	目	達	惡	兜	牟	首	利	多	隷	波	爾	摩
석보상절	헌	롼	묵	딷	학	듛	믈	싈	롕	덩	롕	뵝	싱	뭥
홍무정운	헌	롼	묵	딷	학	듛	믈	싈	례	더	례	붜	시	뭐

또, 김태경(2007)은 『월인석보』의 진언 중 운미 'ㅁ' 표기 외에 모두 『(번역)노걸대』와의 표기가 일치한다는 점을 보아 중국어음에 근거한 표기라고 하였다. 그러나 入聲字의 운미에 대체적으로 'ㅎ'이 사용된 반면 '塞'에는 'ㅎ', '洛'에는 'ㅸ'이 표기되었으므로 오류 혹은 진언음을 나타내기 위한 예외사항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한글의 한음 표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한글을 오독하여 일어난 결과이다. '洛'의 경우 『홍무정운역훈』의 韻目 중 藥韻에 해당하며, 『사성통해』에서 이미 『사성통고』에 약운의 운미를 'ㅸ'으로 표기[54]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는 당시 전통적인 한음 표기일 뿐이다. '塞'의 경우 한음 표기가 '싈'이다. 이를 '싈'으로 오독한 것이므로 이 또한 예외사항이라 할 수 없다.

월인석보 권10 91a

〈그림 4〉『월인석보』의 塞 한음 표기(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54) 『四聲通解』「凡例」 13번째 조항 "(…) 『通攷』於諸韻入聲, 則皆加影母爲字. 唯藥韻, 則其呼似效韻之音, 故『蒙韻』加'ㆆ'爲字, 『通攷』加'ㅸ'爲字. 今亦從『通攷』, 加'ㅸ'爲字".

이외 표기들을 『홍무정운역훈』과 대조해본 결과 『월인석보』는 운미 'ㅁ'의 한자[55]를 배제한 모든 진언 표기가 『홍무정운역훈』의 속음과 일치한다.

〈표 8〉『홍무정운역훈』의 속음과 『월인석보』의 진언 표기 비교 예

대상한자	怛	薩	跋	達	佛	塞	伽	盧	若	羅	歌	帝	哈	三
월인석보	당	상	뻥	땅	뽕	싕	꺄	루	셔	러	거	디	함	삼
홍무정운	당	상	뻥	땅	뽕	싕	꺄	루	셔	러	거	디	한	산

이상의 자료를 보아 세종 생전에 이미 한글의 한음 표기 방식이 규범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한글의 한음 표기 역사는 적어도 『석보상절』의 간행이 완료[56] 된 1449년(세종 31)부터로 비정할 수 있다. 이후 한글의 한음 표기는 『홍무정운역훈』, 『사성통고』, 『사성통해』를 거쳐 『(번역)노걸대』와 같은 한학서로 이어진다.

4. 한글의 雙行註音體裁 漢音 표기

쌍행주음체재의 한음은 한자 아래에 한글을 사용하여 좌·우측음을 부기하였다. 좌·우측음은 『사성통해』 속 「飜譯老乞大朴通事凡例」의 諺音條에서 좌측음은 通考所制之字, 우측음은 지금의 한음으로써 國俗撰字之法에 따라 만든 글자로 소개하고 있다.[57]

이러한 좌·우측음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한글 자모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55) 해당 표기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기다린다.

56) 『석보상절』 서문을 살펴보면 1447년 이미 번역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행 시점인 2년간 표기가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간행이 완료된 1449년을 한음 표기의 상한선으로 보겠다.

57) 『四聲通解』 「飜譯老乞大朴通事凡例」 諺音條: 在左音, 卽通考所制之字, 在右者, 今以漢音依國俗撰字之法, 而作字者也.

본 장에서는 좌측음과 우측음을 나누어 각각에 사용된 한글 표기를 간략히 소개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쌍행주음체재의 시기적 변화를 살펴보겠다.

좌측음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正齒音, 齒頭音 외에도 창제 초기에만 사용되던 각자병서의 표기가 1800년『周易正音』까지 예외없이 사용된다. 또 'ㆅ', 'ㅎ', 'ㅸ', 'ㅹ', 'ㅱ', 'ㅿ', 'ㅇ'과 같은 표기가 초성에서 출현하며, 이 중 'ㅎ', 'ㅸ', 'ㅱ', 'ㅿ'은 종성에서도 표기된다. 'ㆆ'도『(번역)노걸대』에서는 종성에 사용되나 17세기 무신자본『노걸대언해』부터는 거의 사라진다.

반면, 우측음의 경우 좌측음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자음을 살펴보면 좌측음에서 사용되던 독특한 한글 표기는 우측음에서 모두 변환된다. 예컨대 좌측음의 초성에 쓰이던 'ㅎ·ㆆ', 'ㆅ', 'ㅱ', 'ㅹ'의 경우 우측음에서는 대개 'ㅇ', 'ㅎ', 'ㅇ', 'ㅸ'으로 변경된다.[58] 각자병서와 정치음, 치두음도 모두 폐지된다.[59] 종성의 경우도 'ㅎ', 'ㅱ', 'ㅸ'의 표기가 모두 사라진다.

모음 표기의 경우 대체로 언해문과 유사하나, 'ㅙ', 'ㅟ'를 추가적으로 사용한다.[60] 또 우측음의 모음은 'ㅗㅣ', 'ㅗㅐ', 'ㅡㅣ', 'ㅜㅣ'가 새로 출현한다. 이들 표기는 좌측음과 비교하여 규칙적으로 변경된다. 爻운과 蕭운, 尤운에 속한 한자 중 'ㅱ'이 종성으로 표기된 한음이 그 대상인데, 爻운과 蕭운의 경우 'ㅱㅣ'은 'ㅗㅣ'로, 'ㅱㅐ'은 'ㅗㅐ'로 표기된다. 즉 'ㅱ'이 'ㅗ'로 일괄 변환된 것이다. 반면 尤운은 'ㅱㅣ'은 'ㅜㅣ'로, 'ㅱㅡ'은 'ㅡㅣ'로 변경되어 'ㅱ'이 '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58) 단 'ㅱ'의 경우 16세기 자료의 眞·模운에 한해서 그 표기가 유지되며, 17세기 인출된 무신자본『노걸대언해』부터는 그마저도 폐지된다.

59) 우측음의 경우 정치음과 치두음의 字形은 확인되나『(번역)노걸대』부터『중간노걸대언해』에 이르기까지 표기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 또 무신자본『노걸대언해』의 경우 영인본에서 확인되는 오류를 교정한 이본이 있다. 그러나 해당 이본에서도 좌측음의 교정이 이루어진 부분에서 우측음은 교정되지 않았다. 이를 보아 우측음에 한해 정치음과 치두음의 구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0)『사성통해』의 麻韻 설명에서는 'ㅙ'도 사용한다고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운목의 한음 표기에는 'ㅘ'만 들어가있을 뿐 'ㅙ'는 없다. 'ㅙ'의 경우 蒙韻 표기에 사용되나 본고에서는 한음 표기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므로 'ㅙ'는 배제하도록 하겠다.

'ㅱ'의 표기 변화와 관련된 논의는 다수 있다. 그 중 유효홍(2010)[61]에서는 'ㅱ'의 'ㅗ/ㅜ'표기 변화를 『몽고자운』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微母와 운미 [w]를 표기한 파스파 문자가 같은 것은 한음이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한글의 한음 표기 중 'ㅱ'의 사용과 'ㅗ/ㅜ'로의 변화를 같은 사유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한학서에서는 다양한 한글 표기가 사용되었다. 1800년 『주역정음』을 마지막으로 좌측음은 폐지되나 우측음의 한음 표기는 20세기 한어학습서까지도 이어진다. 이들과 현대 보통화를 비교하면 실제 발음에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추후 연구를 기다린다.[62]

5. 漢音 표기의 시기별 변천

雙行註音體裁의 문헌은 하나의 한자 아래에 좌·우측으로 나누어 한음을 표기한 점이 특징이다. 대개 좌측음은 正音, 우측음은 俗音이라 표현한다. 그러나 좌측음을 정음이라 표현하기에는 해당 발음의 성격과 사용된 시기, 지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또, 우측음을 당시 사용되던 발음이라는 의미인 俗音으로 규정하기도 어렵다.

> 덕원이 말하기를, "도강 후 저들에게서 구득한 문서를 위에 올렸습니다. 그 중 오삼계(吳三桂)의 부하인(部下人) 황금(黃錦)의 이름은 進으로 잘못 썼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곽조서(郭朝瑞)의 말을 들은 즉, 錦이었고, 進이 아니었습니다. 대개 **한음으로는 錦과 進이 서로 유사한 음**이기 때문에 잘못 쓴 것뿐입니다.[63]

---

61) 유효홍, 2010 「순경음 'ㅱ'의 종성 표기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제10호, 국어사학회. 유효홍은 여기서 尤운이 속한 流攝과 爻운·蕭운이 속한 效攝을 대립시켜 표기 변화를 고찰하기도 하였다.

62) 여기서의 추후 연구란 본고와 같은 전반적인 표기 변화의 고찰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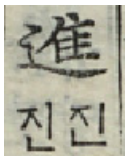
63) 『승정원일기』 숙종 13년(1687) 3월 22일 "德遠曰, 渡江後, 彼中, 求得文書, 呈上矣. 其中吳三桂之部下人黃錦之名, 誤書爲進矣. 歸路, 聞郭朝瑞之言, 則錦也, 非進也, **蓋以漢音, 錦**

위 예문은 1687년(숙종 13) 『승정원일기』 기사이다. 살펴보면 당시 錦과 進의 한음이 유사하였다는 내용이다. '錦'은 老乞大諺解類나 『經書正音』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四聲通解』 등의 운서를 살펴보면 '今, 金'과 같은 '긴'으로 표기된다. 반면, 進은 무신자본 『노걸대언해』의 우측음 및 『사성통해』에서는 '진'으로 표기된다.

신용권(2010)[64]에 따르면 17세기 중반 北京을 중심으로 한 北方官話에서는 이미 구개음화가 체계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한다. 또, 현대 중국어의 병음 표기가 '進[jìn]', '錦[jǐn]'인 점과 함께 미루어보면 위 기사의 '錦'과 '進'은 구개음화로 유사한 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개음화는 중국에서 중국에서 18세기 초중반에 북방관화의 음운체계로 들어가며,[65] 조선에서는 18세기 중반 간행된 『노걸대신석언해』에 들어서 반영되기 시작한다. 즉, 17세기에 일어난 현상이 18세기 중엽에 들어 반영된 것이다.

이상을 보아 정음과 속음이라는 표현 대신 한음 표기의 위치를 기반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모두 좌·우측음이라 표현하겠다.[66]

			
무신자본 노걸대언해의 進 (권하 31a)	무신자본 노걸대언해의 金 (권하 3b)	중간노걸대언해의 進 (권하 34b)	중간노걸대언해의 金 (권하 4a)

〈그림 5〉 무신자본 『노걸대언해』와 『중간노걸대언해』의 進과 金 표기(출처: 규장각)

與進, 聲相近, 故誤書耳".

64) 신용권, 2010 「近代漢語 구개음화 연구 (2): -변화의 양상과 원인을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33권, 한국중국언어학회.

65) 위 논문 52면 참조.

66) 단 韻書에 한해서 正音과 俗音이란 표현을 사용하겠다.

좌·우측음의 성격은 다른 연구자들의 견해[67]를 참조하고, 본고에서는 한음 표기의 변천에 초점을 두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쌍행주음체재의 한글 표기 한음은 16세기 초 『(번역)노걸대』·『(번역)박통사』부터 출현한다. 필자는 『(번역)노걸대』와 시기가 가까운 『사성통해』의 운목을 기준으로 『중간노걸대언해』까지의 한음 표기를 시기별로 나열한 뒤 이를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 한음 표기는 크게 4시기로 나눌 수 있다.[68]

최초의 쌍행주음체재 표기는 『(번역)노걸대』와 『(번역)박통사』부터 확인된다. 이 시기의 한음 표기는 방점 사용, 支운 내 치음 우측음에서 '·' 표기, 『사성통해』 속음과 동일한 좌측음, 眞, 模운에 한하여 우측음에서 초성 'ㅱ'의 표기 유지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1시기로 규정하였다.

이후 1670년경 인출된 무신자본 『노걸대언해』부터 한음 표기가 변화된다. 이를 본고에서는 2시기로 규정하였다. 해당 시기 한음 표기의 특징으로는 방점 폐지, 二의 한음 표기에서 'ㅿ'와 'ㅇ'의 표기 혼동, 支운 내 치음 우측음에서 'ㅡ' 표기, 1시기의 좌측음 표기와 유사하나, 牙, 我 등 일부 한자에서 초성 'ㅇ'로의 복귀, 모든 우측음에서 초성 'ㅱ'의 표기 폐지, 얼화 반영, 六의 경우 우측음이 '루'에서 'ㄹ'로 변화 등이 있다. 해당 시기 한학서로는 『박통사언해』·『역어유해』·『오륜전비언해』[69] 등이 있다. 아래는 두 시기의 비교 예이다.

---

67) 다수의 논저가 있지만 『홍무정운역훈』, 『사성통해』, 『(번역)노걸대』의 한음 표기 성격에 관하여서는 주로 인천대학교 신용권 교수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관련 연구는 선행연구 각주 참조.

68) 해당 자료의 입력과 추출 작업은 이미 끝났다. 그러나 지면상 모든 한음 표기를 실을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그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69) 단, 『오륜전비언해』의 경우 한음 표기에서 2종의 이본이 있다. 1종은 2시기에 해당하는 문헌으로 규장각 소장본의 奎1456과 奎1457이다. 다른 1종은 우측음만 4시기의 표기법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는 현재 일본 동경대 오구라문고 등에 소장되어 있다. 우측음의 개수는 『승정원일기』 1765년(영조 41) 9월 14일 기사를 참조할 수 있다.

〈표 9〉 1시기와 2시기 간의 한음 표기 변화 예

한자	a	b	c	한자	a	b	c
粳	긩/깅	깅・깅	깅깅	物	뭉	・뫃・뭉	뫃우
我	어/어/오	:어오	어오	文	뭔/몬	몬:몬	몬운
牙	야/야	야:야	야야	二	ㅿ/슝	・슝・ᄉᆞ	슝슬/슝을
時	씨/쓩	쓩:ᄉᆞ	쓩ᄉ	兒	ㅿ/슝	슝:ᄉᆞ	슝술
合	가, 해/겋, 혱	・겋・거	겋거	六	루/或呼如溜(뤃)字	・룽・루	룽뤼
君	뀬	뀬:큔	뀬큔	臨	림/린	린:린	린린

(a: 사성통해 정/속음/금속음, b : (번역)노걸대, c: 무신자본 노걸대언해)

1721년 간행된『오륜전비언해』이후 한음 표기는 변화를 겪는다. 이는 1735년 인출된『경서정음』의 인본들에서 확인된다.『경서정음』의 인출은 1735년이나, 1734년 활자를 제작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734년을 한음 표기의 변화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3시기로 규정하였다.

3시기의 한음 표기 특징은 기존 좌측음이 모두『사성통해』에서 제시한 정음 표기로 복구된 점이다. 예를 들어『사성통해』정음에서 'ㅁ'의 운미를 지닌 한자는 기존 1,2시기까지 모두 속음 표기를 따라 'ㄴ'이었다. 이를 3시기에 들어 'ㅁ'의 운미로 복구한 것이다. 이때 우측음의 표기는 2시기와 동일하다. 또 2시기에서 표기의 혼란을 보이던 二의 한음 표기도 'ㅿ'으로 다시 고정된다. 3시기에 해당하는 한학서는 평양판『노걸대언해』가 있다. 2시기와 3시기 한음 표기 변화 예시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0〉 2시기와 3시기 간의 한음 표기 변화 예

한자	a	b	c	한자	a	b	c
粳	깅깅	없음	긩깅	物	뫃우	뫃우	뫃우
如	슈슈	슈슈	슈슈	無	뭐우	뭐우	뭐우
我	어오	어오	어오	文	뭔/몬	몬:몬	몬운
牙	야야	야야	야야	二	슝슬/슝을	싕슬	싕슬

時	씋스	씷스	씷스	兒	슝술	싏술	싏술
合	겋거	햫허	갛거	六	룽륙	룽륙	룽륙
男	난난	남난	남난	臨	린린	림린	림린
群	뀬큔	뀬큔	뀬큔	凡	뺀봔	빰봔	빰봔

(a: 무신자본 노걸대언해 b: 경서정음 c: 평양판 노걸대언해)

이후 쌍행주음체재는 마지막으로 표기의 변화를 겪는데, 이 변화는 1763년 간행된 『노걸대신석언해』부터 확인된다. 이 시기를 본고에서는 4시기로 규정하였다. 4시기의 좌측음은 3시기와 동일하며, 우측음에서 다양한 변화가 확인된다.

4시기의 표기 특징은 우측음에서 구개음화가 일부 반영되었으며, 寒운에 속하면서 음성모음을 지닌 일부 한음이 양성모음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확인된다. 또, 2시기부터 'ㅇ'과 혼동되던 'ㅿ'이 일부 한자를 중심으로 전면 폐지된다. 일부 한자의 경우 'ㅡ'가 'ㅣ'로 변화되는 특징도 보인다. 그리고 魚운에서 모음 'ㅟ'로 표기된 일부 한음 표기가 'ㅢ'로 변경 등이 있다. 4시기에 해당 문헌으로는 『노걸대신석언해』, 『박통사신석언해』, 『중간노걸대언해』 등이 있다. 3시기와 4시기 한음 표기의 변화를 예시로 들면 아래와 같다.

〈표 11〉 3시기와 4시기 간의 한음 표기 변화 예

한자	a	b	c	한자	a	b	c
粳	긩깅	긩징	긩징	物	뽕우	뽕우	뽕우
如	슈슈	슈슈	슈슈	無	뿌우	뿌우	뿌우
我	어오	어오	어오	文	뽄운	미상	뽄운
牙	야야	야야	야야	二	싏슬	싏을	싏을
時	씋스	씋스	씋스	兒	싏술	싏을	싏을
是	씋스	씋시	씋시	人	신신	신인	신인
合	갛거	햫허	햫허	六	룽륙	룽륙	룽륙
男	남난	남난	남난	臨	림린	미상	림린
群	뀬큔	미상	뀬큔	凡	빰봔	미상	빰봔
官	권권	권관	권관	去	큐큐	큐취	큐취
半	붠번	붠반	붠반	與	유유	유위	유위
盤	뽼펀	뽼판	뽼판	許	휴휴	휴쉬	휴쉬

(a: 평양판 노걸대언해 b: 노걸대신석언해 c: 중간노걸대언해)

그리고 4시기에 들어서 좌측음의 정치음·치두음 표기 구분이 불분명해지 시작한다. 원인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앞서 각주에서 언급한『오륜전비언해』개수 시 우측음만을 변경한 점과『노걸대신석언해』에서 구음을 존양하는 차원에서 표기를 남겨두었을 때 좌측음을 배제한 점을 고려하면 좌측음은 4시기에 들어 거의 요구되지 않았던 것이라 여겨진다.

또, 1775년(영조 51) 간행된『譯語類解補』와 1800년(정조 24) 간행된『周易正音』은 간행시기가 4시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역어유해보』의 표기는『譯語類解』가 간행된 2시기의 한음 표기를,『주역정음』은『경서정음』이 간행된 3시기의 한음 표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이전에 간행되었던『역어유해』및『경서정음』의 체재를 따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상 예시로 든 한음 표기를 아울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1시기~4시기의 한음 표기 변화 예

한자	사성통해 정/속/금속	1시기	2시기	3시기	4시기	비고(변화 현상)
許	휴	:휴휴	휴휴	휴휴	휴쉬	방점, 구개음화, ‘ㅣ’모음
去	큐	·큐·큐	큐큐	큐큐	큐춰	
粳	긩/깅	깅·깅	깅깅	긩깅	긩징	방점, 구개음화, 좌측음
與	유	:유유	유유	유유	유위	방점, ‘ㅣ’모음
如	슈	슈:슈	슈슈	슈슈	슈슈	방점
群	뀬	뀬:큔	뀬큔	뀬큔	뀬큔	
牙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방점, ‘ㅇ’→‘ㅇ’
我	어/어/오	:어오	어오	어오	어오	
時	씨/쓩	쓩:ᄉ	쓩스	씽스	씽스	방점, 좌측음
是	씨/쓩/或씽	:쓩·ᄉ	쓩스	씽스	씽시	
男	남/난	난:난	난난	남난	남난	
臨	림/린	린:린	린린	림린	림린	
凡	빰/빤	빤:반	빤반	빰반	빰반	
合	가/·겋 하/헝	·겋·거	겋거	갛거 헝허	헝허	

人	싄	싄:싄	싄싄	싄싄	싄인	방점, ‘ㅿ’ 소실
二	ᄉᆡ/슳	·슳·ᄉᆞ	슳슬/슳을	싏슬	싏을	방점, ‘ㅿ’ 소실, 얼화 반영
兒	ᄉᆡ/슳	슳:ᄉᆞ	슳술	싏술	싏을	
官	권	·권·권	권권	권권	권관	방점, 양성모음화
半	뷘/번	·번·번	번번	뷘번	뷘반	방점, 양성모음화, 좌측음
盤	뻰/뻔	뻔:펀	뻔펀	뻰펀	뻰판	
物	뭏	·뭏·뭏	뭏우	뭏우	뭏우	방점, ‘ㅱ’→‘ㅇ’
無	뭏	뭏:뭏	뭏우	뭏우	뭏우	
文	뭔/몬	몬:몬	몬운	뭔운	뭔운	방점, ‘ㅱ’→‘ㅇ’, 좌측음
六	루/或溜(륳)音	·룽·루	룽뤼	룽뤼	룽뤼	방점, ‘ㅜ’→‘ㅟ’

이상 살펴본 한음 표기는 좌측음의 경우 2시기, 우측음의 경우 3시기로 나뉜다. 이를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시기별 좌·우측음의 특징 및 해당 문헌

시기	1시기 (16세기)	2시기 (1670년대~1734년)	3시기 (1734년~1763년)	4시기 (1763년~1795년)
좌측음	사성통해의 속음		사성통해의 정음	
우측음	‘·’, ‘ㅇ’ 사용 일부 ‘ㅱ’ 사용	‘ㅇ’, ‘ㅿ’의 혼동, 얼화 반영, ‘ㅱ’ 폐지 등		구개음화, 양성모음화 등 반영
해당 문헌	(번역)노걸대 (번역)박통사	무신자본 노걸대언해, 박통사언해, 역어유해, 역어유해보, 오륜전비언해	경서정음, 평양판 노걸대언해	노걸대신석언해, 박통사신석언해, 중간노걸대언해

6. 맺음말

본고는 조선시대 雙行註音體裁 漢學書의 한음 표기 변천을 통시적으로 살펴보

았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홍무정운역훈』, 『속첨홍무정운』, 『사성통해』 등의 운서와 노걸대언해류, 『경서정음』 등의 한학서를 살펴보았다.

본고가 참조한 자료는 그간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자료이다. 특히 『속첨홍무정운』의 경우 자료를 소개한 김완진(1966) 이외에는 활용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해당 자료를 현전하지 않는 『홍무정운역훈』 권1~2를 보완하는 것에 활용하였다.

또, 현전 여부를 알 수 없었던 『노걸대신석언해』 권2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일부 서영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소장처는 명확하지 않으나, 권수면의 서영과 함께 현전 여부를 소개한 것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서영 일부를 참조하였다.

이외에도 『경서정음』은 평양판 『노걸대언해』와 한음 표기가 동일하며 간행시기를 보아 좌측음 표기 변화를 반영한 가장 앞선 문헌이다.

한글의 한음 표기를 살펴보았을 때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진언이 가장 앞선 시기의 자료이며, 조사를 통하여 '塞'의 오독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석보상절』의 진언 표기는 『홍무정운역훈』의 정음과 같고, 『월인석보』의 진언 표기는 『홍무정운역훈』의 속음 표기와 대개 일치한다. 이를 통하여 한글의 한음 표기가 적어도 1449년(세종 31)부터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일반 언해문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자모이나 한음 표기에는 오랜 기간 사용된 자모를 소개하고,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노걸대언해류와 『경서정음』의 한음 표기를 韻目별로 나누어 쌍행주음체재 한음 표기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한음 표기의 변천을 살펴본 결과 쌍행주음체재의 한음 표기는 크게 4시기로 나눌 수 있다. 1시기는 『(번역)노걸대』·『(번역)박통사』가 출현한 16세기 초부터이다. 이 시기 표기의 특징으로는 방점 사용, 支운 내 치음 우측음에서 '·' 표기, 『사성통해』 속음과 동일한 좌측음, 眞, 模운에 한하여 우측음에서 초성 'ㅱ' 표기 유지 등이 있다.

무신자본 『노걸대언해』가 출현하는 1670년경부터 한음 표기의 2시기가 시작된

다. 2시기의 한음 표기 특징으로는 방점의 폐지, 二의 한음 표기에서 ‘ㅿ’와 ‘ㅇ’의 표기 혼동, 支운 내 치음의 우측음에서 ‘ㅡ’ 표기, 牙, 我 등의 좌측음은 ‘ㅇ’의 성모 표기, 우측음의 초성 ‘ㅱ’ 표기 폐지, 얼화 반영, 六의 우측음 표기가 ‘루’에서 ‘뤼’로 변경 등이 있다.

이후 1735년 인출된 『경서정음』부터 좌측음의 표기가 크게 변동한다. 본고에서는 이 시기를 3시기로 지칭하였다. 3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좌측음이 모두 『사성통해』에서 제시한 정음 표기로 복구된 것이다. 이후 『중간노걸대언해』까지 모든 좌측음은 변경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4시기는 『노걸대신석언해』를 기점으로 시작한다. 표기는 우측음만 변화하는데 그 유형은 구개음화 일부 반영, 음성모음을 지닌 일부 한음 표기의 양성모음화, ‘人’, ‘若’ 등 日母를 지닌 일부 한음 표기의 ‘ㅿ’ 전면 폐지, 魚운 내 모음 ‘ㅠ’를 지닌 일부 한음 표기가 ‘ㅢ’로 변경 등이 있다. 4시기부터는 좌측음의 정치음・치두음 구분이 이전보다 불분명해진다.

이상 16세기 초부터 18세기 말까지 이어진 쌍행주음체재의 한음 표기 변천을 살펴보았다. 본고는 기초적인 지표 조사에 불과하며, 18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지는 단행주음체재의 한음 표기는 여기서 고찰할 수 없었다.

한글의 외국어 전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대와 가까운 시기에 사용된 단행주음체재의 한음 표기도 파악해야한다. 주로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사용된 단행주음체재의 표기는 쌍행주음체재의 우측음 표기를 이어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추후 통시적 변천 관점에서 단행주음체재의 한음 표기와 쌍행주음체재의 한음 표기를 아울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논문투고일(2018. 11. 6), 심사일(2018. 11. 16), 게재확정일(2018. 12. 3)

참고문헌

1. 자료

『訓民正音』
『釋譜詳節』
『月印釋譜』
『洪武正韻譯訓』
『經國大典』
『(飜譯)老乞大』
『四聲通解』
『續添洪武正韻』
戊申字本『老乞大諺解』
『通文館志』
『五倫全備諺解』
『經書正音』
平壤板『老乞大諺解』
『老乞大新釋諺解』
『重刊老乞大諺解』
『鏤板考』
고려대학교출판부, 1974『洪武正韻譯訓』, 고려대학교출판부.
정형우·윤병태 共編, 1995『韓國의 册板目錄』, 보경문화사.

2. 논저

곡효운, 2013 再論《續添洪武正韻》」『중국언어연구』46.
곽군남, 2015「〈역어유해〉 한자 어휘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곽재용, 1994「유해류 역학서의 '신체'부 어휘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국경아, 1999「《노걸대신석언해》에 나타난 18세기 한국어의 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광조, 1998「《飜譯老乞大》의 조사 "了", "來", "也"의 의미와 문법적 기능에 관하여」,『중국문학』30.
김무식, 2003「번역노걸대의 표기와 음운」,『문화와 융합』25.

김문영, 2018「《老・朴》 언해 문헌 간 飜譯 樣相에 대한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성란, 1999「〈飜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대조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완진, 1966「續添洪武正韻에 對하여」,『진단학보』29・30.
김은희, 2017「淸學四書의 漢字語에 대한 한글 轉寫에 나타난 漢語語音의 특징」,『중국인문과학』66.
김정림, 2008「《老乞大》 四種版本의 조사 '的', '得'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주국, 2007「〈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의 비교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태경, 2007「『월인석보』眞言표기를 통한 중국어음 연구」,『중국어문학논집』43.
김하라, 2017「『譯語類解』의 편찬과 譯官 金指南」,『규장각』50.
맹주억・김정림, 2006「老乞大諺解類 諸板本 중 '就'의 번역에 관한 연구」,『중국문화연구』9.
박 린, 2011「《老乞大》 諸 刊本에 나타난 부정사의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병채, 1974「원본 홍무정운역훈의 결본 복원에 관한 연구」,『아세아연구』51.
박철민, 2018「『經書正音』의 文獻學的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박향옥, 2010「〈譯語類解〉의 瑣說類 語彙 硏究」,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방종현, 1946「老乞大諺解」,『한글』95.
배석주, 1998「類解書諸外國語音の轉寫表記考」,『경주대학교 논문집』10.
범노신, 2014「《老乞大》,《朴通事》의 漢語 補語 構造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석주연, 2001「《老乞大》와 《朴通事》의 諺解에 대한 國語學的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심영환, 2014「蒙學三書 몽골어의 한글 轉寫 연구」,『역사와실학』54.
_____, 2016「淸學四書 滿洲語의 한글 轉寫 연구」,『역사와실학』60.
신용권, 2004「《飜譯老乞大》에 나타난 좌측음의 성격에 대하여」,『중국문학』42.
_____, 2009「《飜譯老乞大》에 나타난 濁音과 入聲 표기에 대하여」,『중국어학사』54.
_____, 2010「近代漢語 구개음화 연구 (2): 변화의 양상과 원인을 중심으로」,『중국언어연구』33.
_____, 2011「『번역노걸대・박통사』에 나타난 정속음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한글』293.
_____, 2012「《번역노걸대・박통사》의 한어음 표기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언어학』62.
_____, 2016「「홍무정운역훈」에 나타난 속음의 성격에 대하여」,『언어학』76.
_____, 2016「「홍무정운역훈」에 나타난 속음의 성격에 대하여」,『언어학』76.

_____, 2017「《四聲通解》에 나타난 今俗音의 성격에 대하여」,『중국문학』92.
_____, 2017「《四聲通解》에 나타난 今俗音의 성격에 대하여」,『중국문학』92.
안병희, 1993「월인석보의 編刊과 異本」,『진단학보』75.
_____, 1996「老乞大와 그 諺解書의 異本」,『인문논총』35.
안종복, 1986「類解類書에 나타난 國語의 表記法 硏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주호, 2003「〈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진언표기 연구」,『한국언어문학』51.
이돈주, 1989「「飜譯老乞大 · 朴通事」의 漢音 調値에 대하여」,『국어학』18.
이숭녕, 1959「洪武正韻譯訓의 硏究」『진단학보』20.
오종갑, 1978「16世紀 國語의 Hiatus 回避現象 : 飜譯朴通事 · 老乞大를 中心으로」,『한민족어문학』5.
유재원, 2002「조선 역음서의 정속음과 좌우음의 관계 및 성격에 대한 연구」,『언어와 언어학』30.
유효홍, 2010「순경음 'ㅱ'의 종성 표기에 대하여」,『국어사연구』10.
이득춘, 2004「중세의 한국어교육과 교재 : 朝鮮王朝的外語敎育和華語學習」,『이중언어학』25.
이육화, 2008「老乞大語彙考 : ~上, 知他, 怎麽 ,根底를 중심으로」,『중국어문논총』39.
이주리, 2007「《譯語類解》를 통해 본 朝鮮時代 漢語 語彙 硏究 : 품사 분류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춘영, 2018「《譯語類解》의 俗音 · 或音 考察」,『중국어문학』77.
Zhao, Jingjing, 2012「『老乞大』네 개 판본에 나타난 "得"자의 의미기능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서평, 2004「중세의 한국어교육과 교재 :《老乞大》對漢語史硏究的啓示 -漢語作爲第二語言學習和硏究歷史簡論」,『이중언어학』25.
장향실, 2000「近代 國語 母音에 관한 硏究 : 司譯院 譯學書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3「飜譯老乞大朴通事凡例가 부재된 源本『飜譯老乞大』,『飜譯朴通事』에 대한 연구」,『한국어학』61.
_____, 2018「조선시대 외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 사역원의 중국어 교육을 중심으로」,『국제한국어교육』4-1.
정승혜, 2004「『朴通事新釋(諺解)』의 간행에 대한 一考察」,『어문연구』32-1.
조강희, 2006「倭學書의 促音에 表記되어 있는 한글 音注의 特徵과 問題點」,『일어일문학』30.
조신옥, 2005「朴通事 比較硏究 : 中國語原文과 韓國語와의 比較를 中心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주해영, 2011「《老乞大新釋諺解》의 번역 양상과 특징」,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해영, 2011「『老乞大』四種版本 'X時'研究 : 以語法標記作用的 "時"爲主」,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함오매, 2015「『老乞大』언해류의 어휘 양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호규진, 2018「『倭語類解』の日本語音注表記」,『일본어문학』80.
홍윤표・정광, 2001「사역원 한학서의 판본 연구(1)」『한국어학』, 14.

3. 인터넷 자료

미국 컬럼비아대학(https://clio.columbia.edu)
일본 국립국회도서관(http://dl.ndl.go.jp/)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home/main.do?siteCd=KYU)
금요고서방(http://www.kumyo.co.kr/)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https://lib.c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main.do)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cription of Chinese in th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Korean Translation of the *Laoqida* and *Jingshu-zhengyin* −

Park, Cheol-Min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cription of the chinese pronunciation especially transcription of Hangul in the Joseon Dynasty. This notation emerges from the 16th century until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notation is changed four times. The first period is starting from the *laoqida* in the 16th century. This period special feature is using a side dot, '、' in Dental of zhiyun, 'ㅱ' in zhenyun · moyun. Other materials of this period is *piaotongshi*. The second period is starting from the *laoqida-yanjie* printed in around 1670. This period special feature is abolition of side dot, and using '—' in Dental of zhiyun, and reflect erhua. Other materials of this period is *piaotongshi-yanjie*, *yiyuleijie*, *wulunquanbei-yanjie*. The third period is starting from the *jingshu-zhenyin* printed in 1735. This period special feature is change of the left speech notation on the basis of *sisheng-tongjie*. Other materials of this period is *laoqida-yanjie* printed in 1745. The fourth period is from the *laoqidaxinshi-yanjie* printed in 1673. This period special feature is reflect of palatalization, a positive vowel, abolition of 'ㅿ', etc in some china script. Other materials of this period is *piaotongshixinshi-yanjie*, *chongkanlaoqida-yanjie*.

To conduct the research, the researcher used *hongwuzhengyun-yixun*, *sisheng-tongjie*, *xutian-hongwuzhengyun*, various laoqida-yanjie, *jingshu-zhenyin*, particularly second volume of *laoqidaxinshi-yanjie* was used in this research for the first time. Also the researcher refered to mantra in *shipu-xiangjie*, *yueyin-shipu* and the mantra of this book is chinese pronunciation in Hangul. Therefore, the chinese notation of Hangul began in 1449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Key words : Chinese pronunciation(漢音), transcription of Hangul, *Laoqida*(老乞大), *xutian-hongwuzhengyun*(續添洪武正韻), *jingshu-zhenyin*(經書正音), *yueyin-shipu*(月印釋譜), *shipu-xiangjie*(釋譜詳節), mantra(眞言).

〈부록 1〉 諸 譯學書의 한음 표기 비교[간행시기별 순]

한자	운	洪武正韻譯訓	四聲通解	번노	번박	무노언	박언	譯語類解	오륜전비	經書正音	평노	신노	신박	譯語類解補	중간	주역
文	眞	뫋뫋	뫋뫋	뫋뫋	뫋:뫋	뫋운	뫋운	뫋운	뫋운	뫋운	뫋운		뫋운	뫋운	뫋운	뫋운
們		문믄	문믄	믄:믄	믄:믄	믄믄	믄믄				문믄	문믄	문믄		문믄	
看	寒	컨칸	컨칸	칸・칸	칸・칸	칸칸	칸칸	칸칸	칸칸		컨칸	컨칸	컨칸	칸칸	컨칸	
安		헌한	헌한	한・안	한・안	한안	한안	한안	한안	헌안	헌안	헌안	헌안	한안	헌안	
般		뷘번	뷘번	번・번	번・번	번번	번번		번번	반반	뷘번	뷘번	뷘번		뷘번	
他	歌	터타	터타	타・타	타・타	타타	타타	타타	타타	터타	터타	터타	터타	타타	터타	
牙	麻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生	庚	싱숭	싱숭	숭・숭	숭・숭	승숭	승숭	승숭	승숭	싱숭	싱숭	싱승	싱승	승숭	싱승	
吟	寢	:임:인	임인	인:인		인인		인인	인인		임인					
只	紙	지짇又즁	지즁	・즁・ᄌ	・즁・ᄌ	즁즈	즁즈		즁즈	짇즈	짇즈	짇즈	짇즈		짇즈	
子		즈즁	즈-	:즁ᄌ	:즁ᄌ	즁즈	즁즈	즁즈	즁즈	즁즈	즁즈	즁즈	즁즈	즁즈	즁즈	즁즈
市		씨쑹	씨쑹	:쑹・ᄉ	:쑹・ᄉ	쑹스	쑹스	쑹스	쑹스		씷스	씷시		쑹스	씷시	
似		쓰쓿	쓰-	:쓿・ᄉ	:쓿・ᄉ	쓿스	쓿스	슿스	쓿스	쓿스	쓿스	쓿스	쓿스	쓿스	쓿스	
每	賄	뮈믜	뮈믜	:믜믜	:믜믜	믜믜	믜믜		믜믜		뮈믜	뮈믜		믜믜	뮈믜	
小	篠	:셟:샾	셟샾	:샾샾	:샾샾	샾샾	샾샾	샾샾	샾샾	셟샾	셟샾	셟샾	셟샾	샾샾	셟샾	
等	梗	:딍:둥	딍둥	:둥둥	:둥둥	등등	등등	등등	등등	띙등	띙등	띙등	띙등		띙등	
從	送	・쭝・쭝	쭝쭝	쭝:충		쭝충	쭝충	쭝충	쭝충	쭝충/충충	쭝충	쭝충	쭝충		쭝충	쭝충
中		・쥥・중	쥥중	중・중	중・중	중중	중중	중중	중중	쥥중	쥥중	쥥중	쥥중	중중	중중	쥥중
是	寘	・씨・쑹	씨쑹	:쑹・ᄉ	:쑹・ᄉ	쑹스	쑹스		쑹스	씷스	씷스	씷시	씷시	쑹스	씷시	씷스

二		·ㅅ슬	ㅅ슬	·슬·ᄉᆞ	·슬·ᄉᆞ	슬슬	슬을	슬을/슬슬	슬슬	싣슬	싣슬	싣을	싣을	슬을	싣을	
四		·스슬	스-	·슬·ᄉᆞ	·슬·ᄉᆞ	슬스	슬스	슬스	슬스	슬스	슬스	슬스	슬스	슬스	슬스	슬스
大	泰	·때·따	때따	따·다	따·다	따다	따다	따다	따다	때다	때다	때다	때다	따다	때다	때다
宿	屋	·슉·숭	슈숭	·숭·수	·숭·수	숭수	숭수			슝수	슝수	슝수	슝수		슝수	
束		·슉숭	슈숭	·숭·수		숭수					슝수					
日	質	·싣-	ㅅ-	·싱·ㅅ	·싱·ㅅ	싱ㅅ	싱ㅅ	싱ㅅ	싱ㅅ	싱ㅅ	싱ㅅ	싱ㅅ	싱ㅅ	싱ㅅ	싱ㅅ	싱ㅅ
却	藥	·캭·컹	캴컹	·컹·커	·컹·커	컹커	컹커		컹커		캴커	캴커	캴커		캴커	
學		·햑-	햏-	·햏:효		햏효	햏효	햏효	햏효	햏효	햏효	햏효	햏효	햏효	햏효	
的	陌	·딕-	디-	·딩·디	·딩·디	딩디	딩디	딩디	딩디	딩디	딩디	딩디	딩디	딩디	딩디	
北		·빅-	븨-	·빙:버	·빙:버	빙버	빙버			빙버	빙버	빙버	빙버	뻥버	빙버	
合	合	·갑·겋/·햡·헣	가·겋[70]/하헣	·겋·거	·겋·거/·헣:허	겋거	헣허/겋거	헣허/겋거	헣허	햏허	갛거		햏허	헣허		햏허

[번노:『(飜譯)老乞大』, 번박:『(飜譯)朴通事』, 무노언:戊申字本 『老乞大諺解』, 박언:『朴通事諺解』, 오륜전비:『五倫全備諺解』, 평노:平壤板 『老乞大諺解』, 신노:『老乞大新釋諺解』, 신박:『朴通事新釋諺解』, 중간:『重刊老乞大諺解』, 주역:『周易正音』][71]

70) 훈련도감자본 『사성통해』에서는 '컹'으로 보이나, 일본국회도서관에 소장된 구 사역원 소장본은 '겋'으로 나타나므로, '겋'이라 파악한다.

71) 서명이 길어 축약할 수 밖에 없었던 문헌에 한해 서명을 표기하였다.

〈부록 2〉 노걸대언해류 입력의 예(侵韻)

운목	한자	홍무정운역훈 정음/속음	사성통해 정음(성조)/속음/금속음	번역노걸대	무신자본 노걸대언해	경서정음	평양판 노걸대언해	신석노걸대언해	중간노걸대언해
사성통해의 운미 ㅁ 설명 : 今俗皆呼爲ㄴ, 而間有用口呼之者亦多, 故不著俗音如通考也, 後倣此.									
侵	今	김/긴	김(平)/긴	·긴·긴	긴긴	김긴	김긴	김긴	김긴
侵	襟	김/긴	김(平)/긴	긴·긴	긴긴		김긴	김긴	김긴
侵	金	김/긴	김(平)/긴	·긴·긴	긴긴	김긴	김긴	김긴	김긴
侵	林	림/린	림(平)/린	린:린	린린	림린	림린	림린	림린
侵	淋	림/린	림(平)/린						림린
侵	臨	림/린	림(平)/린	린:린	린린	림린	림린		림린
侵	深	심/신	심(平)/신	신·신	신신		심신	심신	심신
侵	心	심/신	심(平)/신	신·신	신신	심신	심신	심신	심신
侵	尋	씸/씬	씸(平)/씬	씬:신	씬신		씸신	씸신	씸신
侵	吟	임/인	임(平)/인	인:인	인인		임인		
侵	陰	힘/힌	힘(平)/힌	힌·인	힌인	힘인	힘인		
侵	壬	싐/싄	싐(平)/싄	싄:싄	싄싄	싐싄	싐싄		싐싄
侵	淫	임/인	임(平)/인	인:인	인인		임인		임인
侵	沉	찜/찐	찜(平)/찐	찐:친	찐친		찜친	찜친	찜친
侵	蔘	슴	슴(平)	슨·손	슨손		슴손		슴슨
侵	參	슴/슨	슴(平)	슨·ᄉ	슴손	슴손	슴손		슴슨
寢	甚	:씸	씸(上) *今俗語ㅣ麽, 音씀	:씸·숨	씸숨		씸숨	씸셔	씸셔

寢	怎		즘(上)	:즘죰	즘즘		즘즘	즘즘	즘즘
沁	禁	·김/·긴	김(去)/긴	·긴·긴	긴긴		김긴	김긴	김긴
沁	妗		낌(去)/낀	·낀·긴	낀긴		낌긴		낌긴
沁	飮	·힘/·힌	힘(去)/힌	·힌·인	힌인	힘인	힘인	힘인	힘인
沁	針	·짐/·진	짐(去)/진	·진·진	진진		짐진		짐진
緝	及	·낍/·낑	끼(入)	·낑·기	낑기	낑기	낑기		낑기
緝	急	·깁/·깅	기(入)	·깅·기	깅기		깅기		깅지
緝	立	·립/·링	리(入)	·링·리	링리	링리	링리	링리	링리
緝	拾	·씹/·씽	씨(入)	·씽·시	씽시		씽시	씽시	씽시
緝	襲	·씹/·씽	씨(入)	·씽·시	씽시	씽시	씽시		
緝	濕	·씹/·씽	씨(入)	·씽:시	씽시		씽시		씽시
緝	十	·씹/·씽	씨(入)	·씽·시	씽시	씽시	씽시	씽시	씽시
緝	什	·씹/·씽	씨(入)	·씽·시	씽시		씽시		씽시
緝	揖	·힙/·힝	히(入)	·힝·이	힝이		힝이	힝이	힝이
緝	入	·쉽/·슝	ㅅ|(入)/슝 *今俗或呼쉿	·슝·슈	슝슈	쉿슈	쉿슈		쉿슈
緝	執	·집/·징	지(入)	·징·지	징지	징지	징지		징지
緝	集	·찝/·찡	찌(入)	·찡·지	찡지		찡지		찡지